

목포권

김환기 화백 찾아가는 예술여행

민예총 전남지회 주최
신안 안좌도서 19·20일

한국 대표적 근대화기인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을 찾아가는 예술여행이 민예총 전남지회 주최로 김 화백의 고향인 신안군 안좌도에서 19·20일 이틀간 열린다.

패리 5호 여객선내에서는 2005-2006년도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사업인 '내가 그리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요'에서 제작한 어린이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떠도는 미술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 개막식에 광주, 전남에서 주목받는 20여 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여객선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면서 "김 화백 생가에 대한 공원과 사업과 기념사업회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와 안좌도를 오가는 대항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시민 68% "시의회 활동 불만"

목포대 지방자치연구 설문조사
"의회 정책 개발 등 활발한 참여 필요"
시정운영 만족은 49%로 증가 추세

목포시민 10명 중 7명은 목포시의회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목포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에서 나타난 의정활동 만족도 31.3%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목포시정 만족도는 2004년 44.2%에서 2006년 49.4%로 다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2.8%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기대한다(47.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무관심과 불만족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포대 김영태교수는 "목포시장의 시정운영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정활동 만족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강화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지역 단신/



목포세관 대불산단내 청사 기공

개청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세관이 영암 대불산단단지 이전한다.

목포세관은 지난 14일 영암군 대불산단 신축부지에서 유선호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오태영 광주본부세관장 등 지역 기관장과 유관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목포세관 청사는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단 내 부지 3천984평, 연건평 772평 규모의 지상 3층의 본관동과 지상 1층의 별관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성중 목포세관장은 식사에서 "이번 청사신축을 계기로 서남권 경제발전은 물론 선진통상국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맑은 자연속에서 '유기농 치료'

언어·발달 장애아동 재활 '성과'

무안 해오름 특수어린이집

무안군 교촌리에 위치한 한 특수 어린이집이 언어장애와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8월에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해오름 특수 어린이집'(원장 홍성환·061-454-4006)은 12세 미만 언어장애·발달장애를 비롯 정신지체를 겪는 영·유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하고 관리해 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로 언어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1년여 재활치료 후 가시적인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해 8월 해오름 특수어린이집

을 찾은 기모(7)양 남매는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정상에 가까운 어린이가 됐다.

뇌성마비 기모(4)양 역시 처음 올 때는 앉거나 누워서만 생활했으나 1년 2개월간의 치료과정을 거쳐 걸을 수 있게 됐다.

이곳은 보육교사 7명이 장애우들을 돌보고 장애 치료사 4명이 각종 치료를 맡고 있다.

또한 2천여 평의 황토밭에서 직접 생산한 각종 채소와 유기농 쌀로 식사를 제공하고, 맑은 공기와 유기농 체형장에서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어 장애아동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앵글에 담은 '섬과 여성'

목포대 도서문화학 사진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교내 박물관 전시실에서 '섬과 여성' 사진전을 열고 있다.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를 지키며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 여

성들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전은 갯벌에서 꼬막을 캐는 팔순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정년이 없다(사진)' 등 김준(도서문화연구소) 교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서남해를 누비며 찍은 사진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1983년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의 해양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문을 연 목포 도서문화연구소는 그 동안 서남해 지역의 경제와 사회, 문화, 역사, 여성 등 섬사람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21일 신안 민요 부르기 대회

'신안 민요 부르기 대회'가 21일 오전 목포신안비치 호텔에서 열린다.

신안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비규, 도초면 등 14개 읍·면 대표들이 참가해 '가거도 뱃노래' '장산 밭매기 노래' '하의도 비리리' 등 섬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적인 민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신안문화원은 신안 민요 보존을 위해 최근 음반으로 제작한 '신안 섬사람들의 삶의 노래' 민요 CD를 행사 중에 무료 배포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various statistics like population, area, and other metrics.

Shin Yang Park Hotel advertisement for '한가위' (Hangawi)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food, the restaurant logo, and promotional text: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연말연시모임', '돌잔치', '상견례', '고희연', '각종세미나(60인 연회장 완비)'.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 234-5815, 234-111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산부동산' (Daeyin Real Estate).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rent,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 234-1116, 234-5815.